한형조

무문관 탐방

60

마조의 횡설수설

* 어느 승려가 물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마조가 대답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 나 혜개가 말한다. "여기서 보는 바가 있다면 공부를 마쳤다."

* 송하여 가로되, "길에서 검객을 만나면 칼을 바쳐라. 그렇지만 시인이 아니거든 시를 바치지 마라. 사람을 만나면 3할만 설할 것이지 전체를 내보여서는 안된다."

非心非佛:

馬祖, 因僧問, 如何是佛. 祖曰, 非心非佛. 無門曰, 若向者裏見得, 參學事畢.

頌曰, 路逢劍客須呈. 不遇詩人莫獻. 逢人且說三分, 未可全施一片.

이 공안은 앞에서 살펴 본 바 있다. 처음 마조는 제자들에게 즉심시불(卽心是佛)을 가르쳤다. 그 가르침에 눈뜬 학인들이 많았다. 그러다가 마조는 어느날부터 비심비불(非心非佛)이라고 딴 소리를 했다. 액면 그대로 보자면 이런 황당무계가 다시 없다. 즉심시불과 비심비불은 180도 다른,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명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禪)은 이 두 명제 사이에 모순은 없다고 말한다. "마음은 부처이다"와 "마음은 부처가 아니다"는 결국 같은 말이다. "마음도 부처도 아니다"도 동일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여기서 삼단논법의 쳇바퀴나 모순율(矛盾律), 배중률(排中律)의 논리적 규약은 빛을 잃는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림 · 문병성

논리학은 감관을 통한 지각과 그를 통합하는 이성의 일차원적 세계를 전제하고 있다. 당연히 인간의 경험이 갖는 보편적 측면, 그리하여 공유와 대화의 최소공약을 떠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불교는 경험의 '수직적 차원'에 더욱 주의한다.

이 차원은 평면적 일차원적 논리로 접근할 수 없다. 논리를 굳이 써야 한다면 역설과 반어, 그리고 이중의 흔적지우기라는 변증을 통할 수밖에 없다. 이는 논리적 규약에 매인 언어가 실재를 나타내기에는 불완전한 도구임을 자각한 결과이다. 언어는 진리를 곧바로 지시(refer)해주거나 그와 대응(correspond)되지 못하고 항상 미끄러지고 빗나간다. 그러니 모든 언설은 언 발에 오줌누기거나, 무문혜개의 표현을 빌면 격화소양(隔靴搔痒)!일 뿐이다.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장님이 있었다. 친구는 그에게 하늘에 떠다니는 하얀구름을 알려주고 싶었다. 온갖 사물로 시시각각 모습을 바꾸는 그 황홀한 메타모르포시스(變身)의 무도를. "하얀 구름이 있어, 알 수 있겠어." "그게 어떤 건데." "음, 그건 겨울에 내리는 눈처럼 말이야…" "아, 그럼 아주 차갑겠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양털같은 건데…" "포근하고 푹신한 거란 말이지." 친구는 점점 난감해 졌다. "아니, 네가 매일 먹는 우유색깔인데, 그게…" "저런, 축축하고 질척거리겠네…" 친구는 여기서 입을 다물 수 밖에 없었다.

장님에게 색깔을 알려줄 수는 없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지각의 범주 내에서 맴돌며 시각을 '번역하려' 한다. 우리도 깨달음이라는 초월적 경험을 일상의 논리나 범주화된 언어로 접근하려 한다. 장님의 노력처럼 그것은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깨달은 선각(先覺)은 언제나 "아니, 아니"를 연발할 수밖에 없다. 네티 네티(neti neti)! 불교가 '부정적 방법(via negativa)'를 선호하는 것은 우리의 시도가 근본적으로 길을 잘못 들었음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다.

마조는 말한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비심비불은 아무런 구체적 적극적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그것은 마조의 말에 귀기울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지를 알려줄 뿐이다. 그럼 어떡할 것인가. 이 야멸찬 문전박대에 걸음을 돌리는 학인들이 많았다. 길도 끊겼고 문도 없다면 이제 포기하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사람들을 마조는 또 막아선다. 심즉시불! 이 말은 "네가 곧 부처이다. 그러니 결코 포기하지 마라"는 권고이다. 학인이 다시 그 희망에 매달릴라 치면 마조는 다시 등뒤에서 꾸짖는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학인은 또 다른 길을 찾아본다. 마찬가지이다. 가는 곳마다 마조는 이렇게 막아서서 얼르며(與奪自在) 학인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것이 그의 위대한 노파심이다. 마조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하다. "길이 막히면 뚫거나 날아가야지 어째서 돌아서기만 하는가."

일상의 논리는 언제나 양 극단을 오간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불교는 이 양극화(邊)를 넘어서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 교설을 본격적으로 다룬 것이 중관(中觀)이다. '이다'와 '아니다', 존재(有)와 무(無) 사이의 두 극단을 떠나라. 그렇다고 어물쩍 중간에서 비비려 하지도 말라. 궁극은 언어와 논리 너머에서 실제 수련을 통한 지평의 확대, 차원의 수직적 이동밖에 없나니. 그 역동적 고요, 수직적 차원의 중심을 중(中)이라 한다. 그것은 그노시스적 신비적 직관에 가깝다. 스콜라적 지식으로는 결코 여기에 다가설 수 없다. 그곳은 선정(禪定)을 통해 경험의 차원을 확장하고 개발함으로써만 기약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선(禪)이라 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선정통해 경험 확장 개발

길 막히면 뚫거나 날아가야지 돌아서면 안돼

"선사들은 마음을 놓는다"

잭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20

정정진③

미국 L.A 근교 한 사찰에서 49일간의 염불대회가 열린 적이 있다. 그런데 49일간 한 자리에 앉아서 염불정근만을 계속하는 이 대회가 과연 올바른 수행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꽉 짜여진 일상에 지칠만큼 지친 사람들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 대회에 참여했다면 무척 답답해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일상에서 우리의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긴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방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즐겨 찾는 습관들을 다스리고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습관이 일상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강력한가' '우리가 잠자면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등을 알게 된다. 또 '아니다' '멈춰서라' '깨어나라' 등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간에서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를 알 수 있다.

하루는 사원 뜨락을 걷고 있는 아잔차스님에게 한 사람이 "스님의 수행법을 알려주세요"라고 청했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우리의 마음에 그 해답이 있지"라고 대답했다.

사실 선사들의 수행법을 그대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다. 이를테면 명상에 임하여 마음은 어떻게 가지는가? 그러나 특별한 것은 거의 없다. 선사들은 항상 있던 그 자리에 자신의 마음을 놓아둘 따름이다. 사람들은 또 묻는다. "그렇다면 스님은 아라한인가요?" "깨달음을 성취하셨습니까?" 그러나 선사들의 눈은 '깨달음' '아라한의 경계'를 보지 않는다.

"내가 누구인가" 자연스럽게 심신 탐험 진실을 보게된다

잎이 무성하고 꽃 피고 열매 맺는 한 그루의 나무는 나무일 뿐이며 새들이 날아와 열매를 먹고 둥지를 틀 뿐이다. 다시말해 나무는 나무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며 있는 그대로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일화는 정정진이 담고 있는 바른 노력을 잘 설명해 준다. 이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해 가고 뜻밖의 선과(善果)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일 매주 매월 '깨달음을 얻겠다' '세간의 문제를 풀겠다' '자신을 변화시키겠다' 등과 같은 특별한 목표를 지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정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깨달은 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라마나 마하시는 "깨달음은 두 가지의 길(고정)에서 얻어진다. 하나는 자기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현재 서 있는 곳을 정확히 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을 화두로 옮기면 "내가 누구인가"이다. 이 공안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탐험하고 무엇인가 발견하도록 한다. 탐험과 발견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것은 내것이 아니라 네것이다"와 같은 생각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실을 보게 되고, 우리의 망심 즉 분별심이 사라지고 진정한 불성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 특히 교육받은 전문직업인들 가운데 대도시를 떠나 소도시나 시골로 옮겨가 좀더 한적하고 소박한 삶을 찾겠다는 이들이 많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일이다. 만일 진흙을 한웅큼 손에 쥐고 꽉 쥐어짜면 흙물이 손가락 사이로 줄줄 흘러나올 것이다. 마찬가지로 압박감이나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탈출구를 찾는다. 여섯 감각기관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지식은 발달해 봤자 깜깜한 한 부분으로서일 뿐이다. 현세의 문제들에 답하게 되려면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알고 사바세계의 어두움 저 위에 비추고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지혜를 깨달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삼독에 휩쓸려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교화는 결코 변하거나 퇴색하는 법이 없다.

"남이든 자신이든 속이지 말라. 남에게서든 자신에게서든 훔치지 말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세간의 문화를 지휘하고 끌어가는 것은 욕망이다. 부처님의 교화는 자비와 법 그리고 진리자체를 안내자로 삼는다.

번역=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69

불교와 수학

64

업

김 용 운

불교는 약 2천5백년전 인도 소왕국의 왕자의 몸으로 태어난 석가모니에 의해 창시된 종교이다. 그의 교리 속에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인도의 사상·종교적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부분도 있다.

어떤 종교적 창조에도 모태가 있으며 완전한 무의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다. 인도의 전통적 사상인 힌두는 '범아일여(梵我一如·대우주의 본체인 프라푸만과 개인의 본질인 아트만은 일체이다)'를 주장하는데 이 입장을 완전히 부정하고 철저하게 '무아(無我)'를 주장한 것이 불교이다. 그러나 업에 따른 윤회사상은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힌두사상은 〈우파니샤드〉에 결집하고 있다. 그것은 윤회전생(輪廻轉生)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여러 단계의 생을 갖는다는 업(갈마)의 법칙과 유일절대의 실체이자 영원한 보편적인 존재인 프라푸만(梵天)의 원리로 성립한다.

갈마(業)의 법칙에 의하면 사람은 생애를 통해서 여러 업을 축적한다. 그 업은 인간의 욕망, 본능, 물욕, 노여움, 시기질투 등의 삼악(三惡)에서 발생한다.

인간은 사후 곧바로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는데 이때 전생에서 축적한 업이 클수록 천하고, 고통이 많은 것으로 태어난다. 이승에서 얕은 계급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의 업의 결과임, 그 속에서 반항하거나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고 자신을 억제하면 보다 나은 내세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물이나 벌레도 전생은 인간일 수 있다. 노예도 귀족도 전생의 업으로 태어났다는 것이다. 필자는 10여년 전 인도여행을 하면서 엄격한 카스트(계급)사회를 목격했다. 카스트제를 주축으로 하는 계층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는 업의 생각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일이 매우 적절함을 쉽게 직감할 수 있었다. 불교는 이 윤회사상을 통해 자비와 실상계로 고도의 도덕심을 갖게하며 특히 스스로의 힘으로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절대적 구제가 가능해진다.

개인생애 · 민족역사 되먹임의 축적 무아론의 불교 '무엇이 윤회하는가'

불교는 카스트의 제일급인 브라만 계급의 승려에 의해 독점되고 경직화된 형식주의, 타락한 힌두교의 본질을 승화, 인간화시키는데서 출발했다. 그러므로 윤회사상을 받아들이면서도 중생에 대한 구제의 길을 크게 열어 놓은 것이다.

아(我·본질)의 존재를 인정하는 종교인 힌두에는 윤회사상은 명확한 논리적 근거가 있다. 그러나 무아(無我·본질이 없다)의 불교에 있어서는 '무엇이 윤회하는가'라는 물음에는 명쾌한 답이 없다. 이 물음에 대해 어느 학자는 벌레가 식물을 먹고, 그 생명이 벌레의 생명 속에 재생하고, 벌레가 새의 먹이가 됨으로써 그 생명이 생의 생명에 재생되고… 인간의 생명 역시 여타의 생명체에서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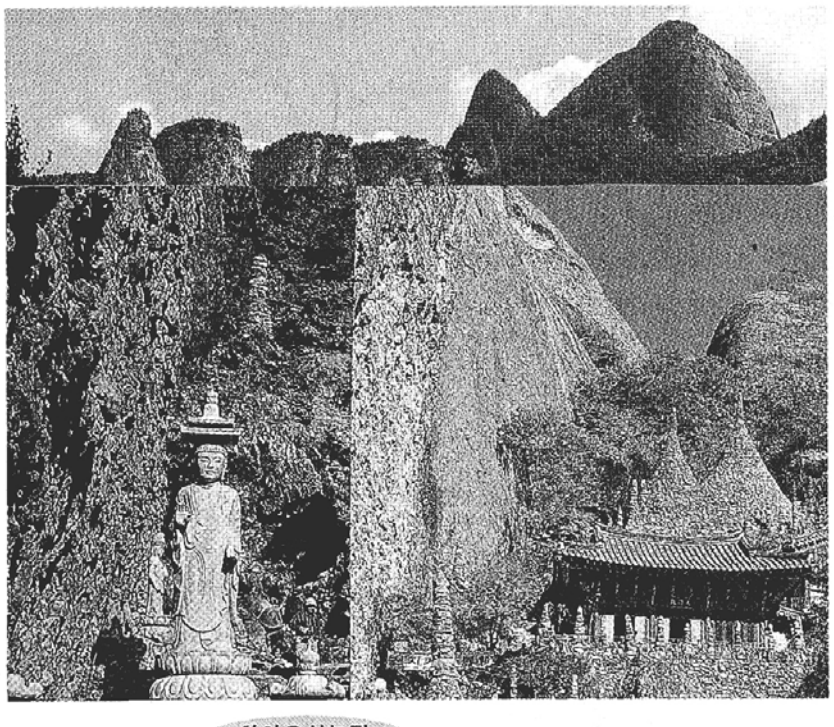
인간이 죽으면 대지에 돌아가 식물의 영양이 된다. 이와같이 각 단계의 생명을 윤회전생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먹이가 된 것은 물질이며 이 순환은 단순한 물질순환에 불과하다. 본래 윤회는 정신적인 순환이며 정신이 여러 물질적 생명 상이를 전전해가는 상태를 말한다.

가끔 전생의 기억을 가진 사람이 나와 화제를 모을 때가 있으나 그 내용은 애매하며 아무도 정확히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설령 전생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전생을 믿었던 고대 인도인들은 인간이 전생의 기억이 없음을 재미있게 설명한다. '사람이 태어날 때 모태에서 좁은 산도를 통해 이승에 나오는데 그 때 머리를 강하게 압박받음으로써 전생의 기억을 잃는다.' 그러나 이 설명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필자는 윤회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여긴다. 업은 전생, 내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승에 있다고 믿는다.

인간의 어떤 정신적 육체적 언어적 행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반드시 마음, 육체, 사회에 그 흔적을 남긴다. 수양이 쌓이고 지식이 축적되고 몸이 단련되는 것도 모두 업의 결과이며 심지어 최고의 경지인 부처도 될 수 있다. 개인의 생애, 민족의 역사는 모두가 과거로부터 미래로 향하는 되먹임의 축적으로 여겨진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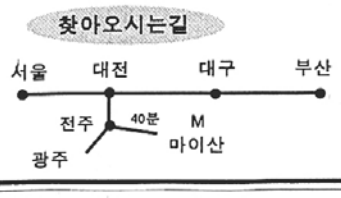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화제의 새 책

"귀신의 병은 100% 낫는다."

구천에서 떠도는 영혼들을 기를 통해
저승길로 인도하는 연화심 보살의
영능력 세계!

뚜렷한 병명 없이 아픈 사람들이나
신이 내렸다고 하는 사람들을
손하나 대지 않고 치유하는
신통력을 지닌 연화심 보살

"기를 모으면 영혼을 부를 수가
있는데 빛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현생에서 지은 업의 크고 작음에 따라
색이 다르게 나타나죠. 저승에 가지 못하고
떠도는 혼들을 사후세계로 보내주면 혼령
이 붙어서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던 사
람들이 씻은 듯이 낫게 됩니다."
-〈여성중앙〉-

영혼을 천도하는 연화심
김점기 지음

신국판 240쪽/값6,000원

• 읽고 난 후 저자에게 문의하실 분은 전화주세요.
• 서울: 지장정사 02)651-3880 • 부산: 보운사 051)523-5262

도서출판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4-5호 중앙B/D
전화: 3474-3521(영업부) 팩스: 3474-3524